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6년 5월 1일 111호

커버스토리

칼럼 시 시대, 농산업 생태계의 발전 조건
 상록문학상 시부문 최우수 '흙에 대한 감사'
 2026년 새해인사회
 모교석학 농림생태계 탄소순환 글로벌 연구자
 류영렬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026년 1학기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동문탐방 (사)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정근우(농화학84)
 모교소개 안양(관악)수목원
 상록, 상록의 아들
 입학50년, 그 설렘과 격동의 나날을 돌아보며 조계현(농화학76)

Water Pipe, Life Line
 대한민국 플라스틱합성수지관의
 대표 선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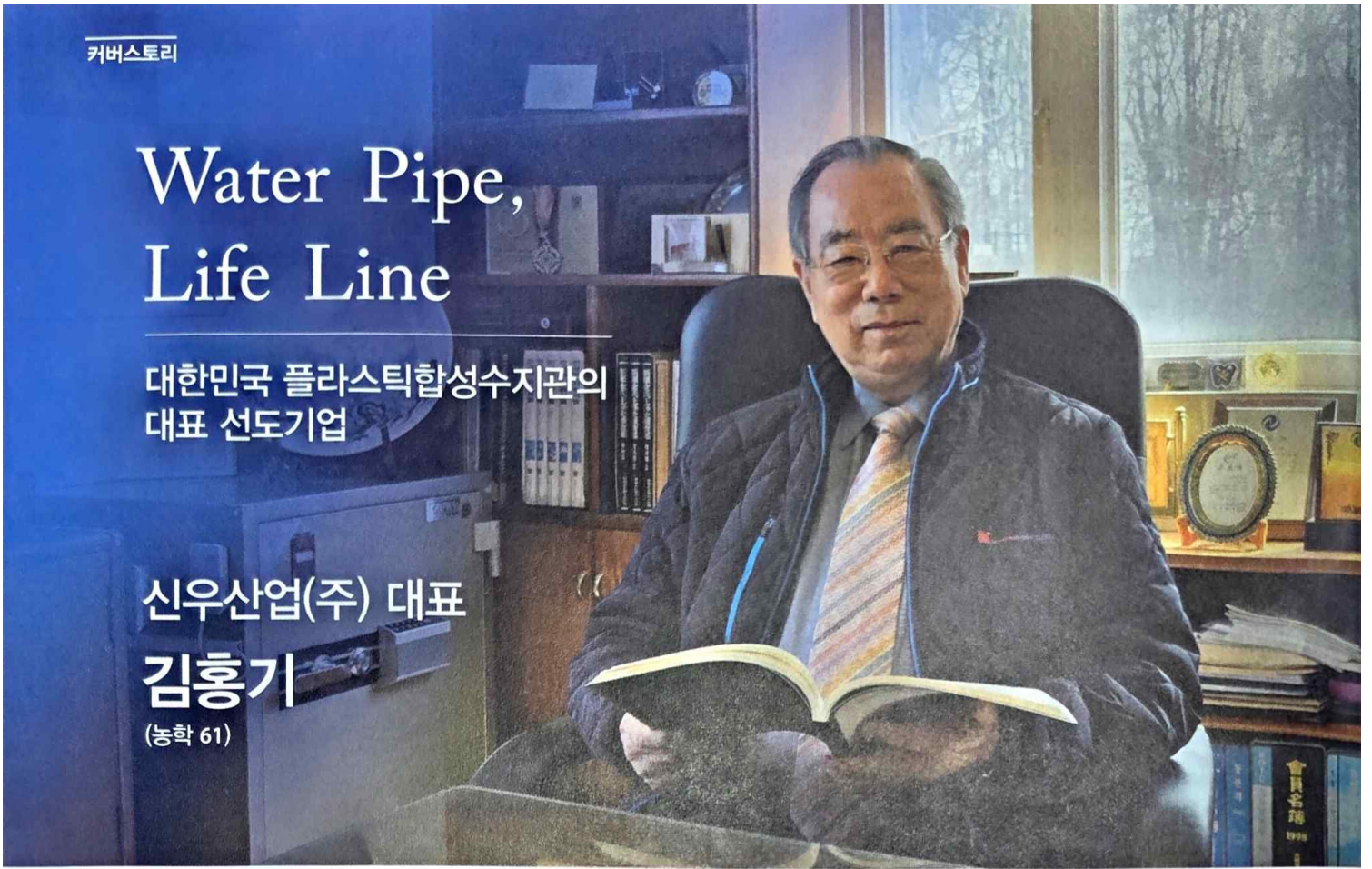
신우산업(주) 대표

김흥기

Water Pipe, Life Line

대한민국 플라스틱합성수지관의
대표 선도기업

신우산업(주) 대표
김흥기
(농학 61)



집무실에서

농학을 전공하셨는데 상하수도관 제조업을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설 상록수 주인공인 박동혁과 같은 삶을 꿈꾸고 농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어렵듯이 세상 현실을 알게 되어 진로를 변경하여 가업(家業)을 잇기로 결심한 후 1967년 ROTC 육군소위로 전역하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의 기초를 배우게 되었고 1968년 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PVC라는 신소재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난방, 취사 등에 거의 연탄(19공탄)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연탄가스로 인해 인명은 물론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던 합석까지 삭게 하여 사회문제가 되던 때였습니다.

이에 녹슬지 않고 연탄가스에도 부식되지 않으며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니는 신소재와 관련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있던 즈음, 갓 결혼한 아내가 모이든 갯돈을 내어주면서 직원들의 월급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하라 하기에 그러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58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신우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방계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개와 그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기업인 신우산업(주) 외에 일우산업(주), 유니켄(주), 에스아이피산업(주) 등이 있습니다. 신우산업(주)은 주로 PVC 원료로 토목자재인 PVC 상하수도관과 통신관 및 건축자재들을 생산하고, 일우산업(주)은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대구경인 PE 상하수도관의 토목자재와 전기설비자재인 가요전선관과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전선보호관을 생산하고 있고, 유니켄(주)은 가교폴리에틸렌으로 전선이음부의 누전을 방지하는 열수축튜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아이피산업(주)은 6·25전쟁 후 정읍에 알루미늄 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던 아버님과 의 약속을 이루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PVC 및 PE 원료를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용 전선관, 토목자재인 상하수도관과 건축자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국내에 막 시작되던 집단 양계시설의 닭모이통을, 그리고 새마을운동사업의 상징과 같은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창립57주년 기념, 직원들과 함께(김포 공장)

에 꼭 필요한 식지 않고 녹이 나지 않는 물받이와 홈통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농어촌 간이 상수도 보급에 필요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KS를 획득하여 공급하며 새마을사업과 국가 기간사업에 동참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대기업들의 PVC 통신선 보호관 사업에 공장 설비 시설을 개조하여 참여하기 시작하고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하여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상수도확충사업과 산업화로 오염되고 있는 토양을 지키기 위한 하수정비사업에 동참하여 합성수지 플라스틱 파이프를 보급하여 환경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양수기용 PVC 나선호스, 일본 강점기때 우리나라 농토를 수탈하였던 일본의 동양척식회사 관련 인사의 손자인 가네오시로의 기술로 국내에서 독점 생산되던 나선관 생산을 우리 회사가 독자 기술로 국내 특허를 획득하여 생산·보급하게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대구경 PE관의 특허기술도 국내 특허를 획득하여 생산하는 쾌거를 이루어 PE 대구경 하수관을 생산·보급하는 기술을 마련하였다는 민족적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우산업이 1968년 설립되어 올해로 59년이 되는군요. 그동안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기였을 때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PVC파이프는 1963년도에 당시 상공부차관을 지낸 배용도라는 분이 일본의 세키스이화학공업의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 미아리, 쌍문동에 비달산업을 설립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여 한양화학, 진양화학, 럭키화학, 내쇼날프라스틱이 외국에서 트윈(twin) 압출기를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18평 임대공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대도공작소(서울 영등포)에서 압출기 실린더(cylinder)는 박격포의 포신으로, 스크루(screw)는 자동차의 차축으로 가공하였고 변속장비로 중장비 미션(mischen)을 개조하여 싱글(single) 압출기를 만들어 중소기업 최초로 PVC 파이프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양수기용 PVC 나선호스,
:
독자 기술로 국내 특허를 획득하여 생산·보급

PVC 수지는 열에 약하여 열안정제를 배합하여 압출기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 계통에 문외한이었던지라 배합부터 기계구조까지 파악해야 했으며 제품생산의 원료배합비는 당시에

는 기밀이었기에 배합사들의 횡포가 심하여 부산까지 내려가 배워오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특허를 침해하면 인신을 구속하던 때였는데 본인이 생산하는 닭모이통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문제로 매일 형사들이 둘러 신병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 오봉국



신우산업 1호 압출기 앞에서
(왼쪽은 신형, 오른쪽은 구형)

교수님의 '닭은 색맹이고 닭의 항문을 부리로 쪼는 것은 벌레인 줄 알고 쪼다.'는 확인서를 받아 그 특허권리가 잘 못되었다는 해명을 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은 항상 기억하며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부족한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슈퍼믹서(super-mixer)를 자체 개발하여 부족한 원자재에 충전제를 섞어 고객들에게 부족한 제품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서울 북부 일원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었을 때 서울시는 그 책임을 PVC관이라고 오판하여 사용 중지령을 내려 제품 판로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기업만이 납품하던 통신선 보호관 시장에 부분 혼용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통신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제품판매 활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후 트윈 스�크루 압출기(twin-screw extruder)를 개발하여 제품품질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들에게도 공개 보급하여 중소기업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향상된 중소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서로의 생존 문제가 걸렸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생산시설의 국내개발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신제품 개발로 위기를 탈출하였지만 때로는 다른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때로는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때로는 직원들과 힘을 합쳐 배수진을 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고등학교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정직이 최대의 경쟁력이라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직면하여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제 와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

정직이

최대의 경쟁력이라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당당하게 직면하여 극복

신우산업을 대표할 만한 제품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PVC 상수도관, 하수관의 품질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관로 설치공사 중 잘못된 결구 방법으로 인해 관과 관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부위에 2중의 고무링을 설치하여 그중 1개의 고무링은 수평창 고무링으로 구성하여 누수와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는 "누수 제로(ZERO)" 파이프가 대표 생산제품이고, 하수관의 경우에는 사용 시 악취유입을 방지하는 오수받이가 있는데 오물



제품전시관에서



누수제로 파이프

출구에 인버터 경사를 주어 오물을 신속히 배출시키는 우리나라 주택 배수구조에 맞는 “한국형 오수받이”가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하수관 관로에 오물이 퇴적되어 도시의 악취를 유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PVC 난형(계란형) 파이프”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국내외에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우산업의 경영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세가 경영후계자로 참여하여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소재개발과 기능성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에 스마트자동화시스템과 AI기술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 개발하여 공급하였지만 우리나라 농업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스마트 농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농약으로 오염된 관개수로를 매립하여 농토 확장과 농업용수의 생산원가를 낮추며 농약과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는 농업용수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농업용수관 개발과 도시의 생활하수 악취 유발을 방지하는 친환경제품인 난형관 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사회적 책무도 게을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상록수의 주인공처럼 어디서든지 국가를 위하여 보람

있는 일이 되길 바라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마음으로 가정과 우리 회

사의 종업원들과 우리 업계의 동업자들을 위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한말 미국의 선교사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자유와 평등의 서광을 비추어 주셨고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6·25동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힘을 다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역사

(役事)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통하여 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세우는 청년들이 되도록 헌신하는 군선교 사업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지금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있을까요?

동기생인 고(故) 염도의 군이 선물한 『열등감에 대하여』라는 단행본과 이어령 교수의 『지성의 오솔길』을 읽은 후에 나 자신과 세상을 폭넓게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염도의 군이 새벽마다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시작하던 근면함과 성실함을 옆에서 보고 배우려 노력하였습니다.



2세경영인, 장남 김주환 대표와 함께



부인 정혜자 님과 김흥기 동문(앞줄 중앙)

요즘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창업하려 하지 말고 기회를 때마다 많은 상식을 쌓아두고, 특히 학창시절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ROTC에 지원하여 리더십을 갖추고 경영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워두면 사업의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사업가로도 개인으로서도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고마운 이들에 대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대구경 PVC관을 개발·보급하여 농업 현대화에 보탬이 되어 황무지를 개간 하겠다던 젊은 날의 꿈의 일부라도 이루고 싶고, 위기마다 도움을 주신 분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땀 흘리며 본인을 믿고 따라준 모든 직원들, 업계를 이끌어온 동업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인 아내에게 끝없는 감사와 사랑을 보내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손 모두 전능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우리 기업의 신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요 약력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
- 한국 PVC관 KS표시 허가업체 협의회장
-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초대이사장
-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이사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감사, 현재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설립 3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2025. 3.)

주요 수상

- 고려대학교 총장상
- 공업표준화부문 대통령 표창
- 특허기술상 수상 / 발명의 날 행사
- 환경부 장관 표창 / 세계 물의 날 행사
- 조달청장 표창
- 산업자원부 장관상
- 우수장수기업 수상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국무총리상 수상 / 중소벤처기업부 (2023. 5. 16.)